

다산포럼



김 태 희
다산연구소장

뒤늦은 합격 통보

가 젊은이들에게 깊은 좌절과 분노를 일으키는 것도 마찬가지다. 청년 취업난 속에 각종 스펙을 쌓느라 바쁜 젊은이에게서 ‘부모 잘 만나는 게 최고의 스펙’이라는 자조가 튀어 나온다.

차별과 배제, 나라를 망하게

강원랜드의 경우, 2013년 선발 당시 최종 합격자 518명의 95.2%가 정탁 리스트에 따른 합격임이 확인되었다. 현재 근무 중인 부정 합격자 226명은 이달 말까지 퇴출하기로 했다. 청탁자는 강원랜드 사장과 임직원,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총 30여 명이라고 한다. 얼마 전 필자가 찾은 어느 공단에서도 낙산산 채용이 적지 않다는 관계자의 실토를 직접 듣고선 상황이 심각함을 실감했다.

대기업의 직원 채용도 사회적 관심사다. 그런데 노조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단체협약을 맺어 논란을 빚기도 한다. 대기업 노조 입장에서는, 자율적인 협약이 무슨 문제냐, 노조원이 회사에 기여한 대가가 아니라, 항변할 수 있다. 대기업의 직원 채용이 공공 기관과 같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대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

안하면 간단히 묵과할 문제는 아니다. 더욱이 대기업 노조가 그동안 노동과 인권을 보호하는 구실을 했는데, 이제 사회 전체의 불공정을 조정하는 구실을 한다면, 사회적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다.

최순실·정유라 모녀와 같은 불공정 사례가 특별한 권력에 국한된 일부 현상이 아니라, 저마다 그런저런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아닌가 걱정이다. 채용 비리를 비판하면서도 너도나도 그런 기회를 찾는 데 급급한다면, 누가 누구에게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말할 수 있겠는가.

조선 후기 정약용은 ‘통색의’라는 글에서 인재를 버리는 현상을 고발했다. 인재를 찾기는커녕 신분을 가려 버리고, 지역을 가려 버리고, 당색을 가려 버린다. 결국은 수신 가문 출신 외에는 인재가 모두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정약용보다 선배인 이가환은 정조 10년에 평안도 정주 수령으로 부임하여, 서북 지역 출신 인재에 대한 심한 차별을 확인하고는 개탄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가환과 정약용이 정조의 시대에는 관리가 되어 뜻을 펼 수 있었지만, 정조 사후에는 이념의 굴레가 씌어져 각각 죽

음과 유배를 당했다. 조선 사회는 점점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달았다. 조선 땅국의 근원은 다른 데 있지 않았다. 바로 차별과 배제가 누적된 결과였다.

감사원은 지난해 53개 공공 기관을 감사하여 8월에 감사보고서를 냈다. 이어 부처별 전수 조사로 확대했는데, 부정한 인사 청탁이나 압력 행사, 부적절한 위원 구성, 평가 기준의 부당한 운용 등의 문제를 광범위하게 적발했다. 정부는 법정 부적인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최근에 알려진 가스안전공사의 피해자 구제는 감사원 감사 결과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거쳐 이뤄진 첫 번째 구제 사례이다.

부패와 무능, 조직을 병들게

공공 기관은 공직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공공 기관답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 공정한 채용은 그 첫걸음이다. 위법한 방법으로 사사로이 뽑힌 직원이 과연 공직 임무에 필요한 자세와 능력을 갖추었겠는가. 부패와 무능은 서로 쉽게 결합한다. 그리고 부패와 무능은 반드시 조직과 공동체를 병들게 한다.

社說

부실 검증 방지, 후보 경선 늦출수록 좋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을 조기에 마무리하기로 하면서 자칫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부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전남의 경우 후보들이 많아 경쟁이 치열하고 당원 명부 유출 수사 등 변수가 적지 않으므로 철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광역단체장의 경우 단순·전략공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후보를 ‘컷오프 후 원샷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광주와 서울 등의 일부 후보들이 요구하고 있는 결선 투표나 1·2차 경선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7명의 예비후보가 물린 광주의 경우 공천 심사를 통해 컷오프를 한 뒤 경선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선 시기는 남북 정상 회담 이전인 다음달 22일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본선에 나설 후보를 조기에 결정해 남

북 정상 회담이라는 호재 속에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전략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일고 있는 과열 경쟁 양상도 ‘조기 경선’의 배경으로 꼽힌다.

하지만 광주·전남 지역은 높은 당 지지를 덕분에 ‘경선이 곧 본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상황에서 경선을 서둘러 치를 경우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광주시장 후보 경선의 경우 ‘당원 명부 유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가 조기 경선 이후 발표되면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선거 전략으로 조기 경선에만 초점을 맞춰 일방적인 컷오프와 경선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후보들이 많은 광주·전남의 경우 정책 토론회 등 후보 및 정책 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 더욱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지역 유권자들의 민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당원명부 유출 수사 마무리 빠를수록 좋다

민주당 광주시당 당원명부 유출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지 2개월이 넘었으나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수사를 끝낸 끝수록 후보 간 공방만 치열해지면서 정책 선거가 실종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월 11일 민주당 권리당원 3명이 광주경찰청에 당원명부 유출과 관련, 광주시장 출마 예비후보인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시작됐다. 경찰은 당원명부가 전 조직국장 A씨를 통해 외부로 유출된 점과 이 전 부위원장 측에서 광주지역 당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이 당시 이 전 부위원장 비서 B씨(일자리위 정책비서관·정무직 5급)의 계좌에서 나온 점 등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수사 결과 발표 시기와 법 적용 여부 등을 놓고 고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경이 현재 적용을 고민 중인 혐의는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크게 5가지로 압축되고 있다. 이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공직선거법인데 위반 여부에 따라 사실상 이 전 부위원장의 광주시장 출마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 전 부위원장의 비서 B씨가 공무원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이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이 전 부위원장의 비서 B씨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당법 위반을 적용하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과가 어찌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경정은 수사를 조기에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공정한 광주시장 경선을 위해서는 당원명부 유출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지구 궤도를 돌던 우주 정거장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된다. 급파된 두 우주 비행사는 가까스로 우주 정거장과 도킹하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우주 정거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두 사람은 어떻게든 우주 정거장 기능을 살리려 하지만 지상 관제국은 지구 귀환을 명하고, 군부는 미사일로 우주 정거장을 폭파시키려 한다. 두 우주인의 필사적인 노력 끝에 태양 전지판이 기능을 되찾으며 우주 정거장을 다시 가동시킬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1월 개봉한 러시아 영화 ‘스페이스 7(감독 클립 시렌코)의 줄거리이다. 미국과 옛 소련이 치열하게 경쟁하던 냉전 시대인 1985년에 궤도를 이탈해 지구로 추락할 위기에 놓였던 우주 정거장 ‘살류트 7호’ 실화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다.

살류트(Salyut), 미르(Mir), 스카이라브(Skylab). 옛 소련과 미국이 1970년대에 운영한 우주 정거장 이름이다. 그러나 1990년대 초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하면서 양국은 우주 개발에 손을 잡게 된다. 그 결과 미국과 러시아, 유럽 연합, 일본 등 16개국이 공동으로 참여

하는 국제 우주 정거장(ISS)이 탄생하게 됐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첫 우주 정거장이자 우주 실험실인 ‘톈궁 1호’가 오는 30일에서 4월 2일 사이에 대기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추락 지역은 북위 43도에서 남위 43도 사이로 예상된다. ‘톈궁 1호’는 영화와 달리 지구에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불타 버리겠지만 지상에 낙하해 피해를 줄 가능성도 야

주 배제할 수는 없다. 이번 ‘톈궁(天宮) 1호’ 추락은 한국의 우주 개발 현수조를

아보게 한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 손으로 만든 로켓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ISS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한국 실험 모듈에서 다양한 과학 실험을 수행하는 우주인을 꿈꿔 본다.

한편 지상으로부터 400km 높이의 지구 궤도를 도는 국제 우주 정거장은 맨 눈으로도 볼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서 ‘국제 우주 정거장’(ISS) 앱을 내려받으면 실시간으로 ISS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밤하늘을 가로질러 가는 ISS는 생각보다 밝고 꽤 빠르다.

/송기동 예방부장 song@

교단에서



김 진 구
우산중 교감

학교 텃밭과 말바우 시장

말바우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광주 북쪽 시골사람들이 물물교환을 위해 광주읍내로 들어오다가 텃밭이 심한 역촌 어귀에서 길이 막혀 역촌마장이었던 말바위 근처에 장이 섰다는 것이다. 역촌사람들은 말굽 편자를 만들던 장제 기술과 말을 장식하던 매듭 솜씨가 뛰어났고, 질 좋은 수공예품이 많아 읍장 못지않게 인기가 있었으며, 창평, 담양, 각하 일대의 나무꾼이 몰려 오늘날 동강대 앞에는 나무 시장이 섰다고 한다.

말바우 시장을 걸으면서 떨칠 수 없는 생각이 경양방죽과 태봉산이다. 경양역은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경양방죽은 광주역 근처 태봉산을 깎은 흙으로 60년대에 매립되었다. 향토사학자인 노성태 교사(국제고)가 쓴 ‘광주의 기억을 걷다’에 보면 500년 넘게 광주의 젖줄이었고 휴양지였던 경양방죽은 1939년 일제에 의해 3분의 2가량 매워졌고, 1967년 2차 매립의 수모를 당하면서 흔적조차 없게 되었다. 광주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광주읍이 광주부로 승격될 무렵인 1935년 경양방죽 매립이 처음 추진되었는데 이때 주민들은 격렬하게 반대했다. “장자 광주대도시로 발전할 때를 대비해서 경관이 수려한 풍치지구를 아름답게 보전해야 한다.” 매립을 반대하는 이유 한 가지이다. 멀리 내다보는 탁견이 아닐 수 없다. 5

만여 평의 경양호와 수백 년 된 빛나무, 팽나무, 양버들나무가 현재 광주은행 본점과 계림동 옛 시청으로 이어진 방죽에 남아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무등산이 경양호에 잠시 머물다가 노을 쬐는 모습별은 영산강을 따라 서해로 흐르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모종 몇 판을 들고 학교로 돌아왔다.

몇 년 전부터 운동장 가에 상자 텃밭과 노지 텃밭을 만들어 교직원들이 훌륭한 재미를 보았다. 방과 후 잠깐 짬을 내서 잡초를 뽑고, 한 움큼 채소를 따오는 모습이 멀리서 지켜보면 그렇게 오질 수 없다. 올해는 담임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가꿀 수 있도록 모든 반에 학교 텃밭을 계획하다.

도시 인근의 소규모 학교나 분교, 신입생이 없어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가 텃밭 가꾸기와 같은 노작 교육을 통해 재학생이 늘어나고 교육적 성과를 거둔 사례가 많다. 한평생 자신이 먹은 음식물을 한 번도 스스로 기르거나 가꾼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학생이나 성인 할 것 없이 푸성귀 한 잎을 직접 가꾸서 먹어본 느낌을 실제 체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텃밭은 투자가 규모는 작지만 성과가 큰 생명 교육의 현장이다.

텃밭이란 말은 고향, 불법, 엄마란 단어처럼 머물거나 안기고 싶은 느낌을 준다.

텃밭은 집안에 있거나 집 근처에 있다. 집과 먼 거리에 있는 밭은 텃밭이라 하지 않는다. 텃밭을 가꾸려면 먼저 마음이 텃밭이어야 한다. 단일 품종의 대규모 농사를 꿈꾸면서 텃밭을 가꾸는 것은 어렵다. 텃밭을 가꾸는 사람의 마음이 거칠지 않다. 거친 마음이나 큰 욕심으로는 텃밭을 다독일 수 없다. 텃밭은 가까이에서 무엇을 거둔다는 것도 있지만 보살핀다는 의미도 크다. 어린 싹을 가꾸고 보살피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찾는 심경(心耕)이 된다.

텃밭은 이랑 농사이다. 한 평 정도의 작은 땅이지만 이랑을 따라 상추, 케일, 파, 고추가 자라고 대나무 몇 개 꽃이 오이 넝쿨 올리면 그만이다. 봄 채소는 큰 것부터 숙여먹고, 가을 채소는 작은 것부터 백미는 지혜를 보태면 된다. 그리고 이 좁은 공간에서 생산자인 식물과 소비자인 동물(인간), 분해자인 미생물이 어떻게 잘 어울리려야 건강한 생태계인지 깨닫게 된다.

며칠 전에 국사범이 아니라 경제범으로 구속된 정직 대통령의 식사는 1식 3찬인데 ‘일사천리’로 만든다. 즉 국가가 제공하는 한 끼 공식 비용이 1472원이다. 우리 학생들의 점심 급식 한 끼 식재료비는 2760원이다. 텃밭에서 직접 키운 상추 한 잎만도 못한 권력의 무상함을 우리는 보고 있다.

기 고

내 안의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남자분의 경우 아마 ‘00회사 영업과장, 홍보부 대리 아무개입니다’라고 직장과 직급 이름을 대겠지요. 그런데 그 것보다 더,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000의 엄마이기 전에, 00기업의 영업과장이나 홍보부 대리이기 전에, 원래의 여러분은 누구였느냐는 말입니다.

조금 전 여러분이 자신을 소개할 때 등장했던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다 세상이 만들어준 겹칠이지요. 물건을 싸고 있는 포장지란 말입니다. 그 겹칠 외에, 그 포장지 외에, 여러분은 과연 그 겹칠과 포장지 안에 있는 자신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유로웠던 처녀 시절, 총각 시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과거나 어린 시절이나 성장 과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은 원래의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 그동안 살아오면서 세월과 세상의 풍파에 꺾여 변했다는 사실을 제가 지금 말씀 드리고 싶은 걸

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원하는 인생만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까지 세상이, 그리고 내가 아닌 남이 원하는 삶을 살아왔을 겁니다. 분명히 내 인생인데 그 주인공이 내가 아닌 남이었다는 거지요.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는 엄마가 원하는 삶, 아빠가 좋아하는 삶, 그리고 더 자라면서는 친구들이 또는 선생님들이, 그리고 결국은 세상이 원하는 삶이 기대하고 세상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왔던 거지요. 진정으로 내가 뭘 원하는지는 잊은 채 말입니다.

제가 아는 분의 너털 살짜리 꼬마 손자가 오랜만에 할머니댁에 와서 밥을 차려주려는 할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할머니 나는 잡곡밥하고 나물 반찬만 주세요. 나는 세상에서 그제 제일 맛있는 어요.” 이 꼬마의 입맛이 원래 그랬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꼬마가 처음으로 잡곡밥과 나물 반찬을 먹었을 때 쏘아졌을, 부모와 주변 사람들의 칭찬은 즉히 상상이 되네요. 아마 그 칭찬은 ‘착하다’는 말이였겠지요. 그리고 그 꼬마에게

는 ‘잡곡밥과 나물을 먹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되지 않았을까요? 착한 사람이 되려면 잡곡밥을 먹어야하고, 칭찬을 받으려면 나물을 맛있게 먹어야 했겠지요. 그 칭찬과 쏟아지는 박수갈채 속에서, 그제 정말 내 입에 맞았는지 없는지는 뒷선으로 물러난 채 말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인이 된 뒤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참된 자아, 참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데도 허무하고, 다 해봤는데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공허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임을 빨리 알아차리십시오. 그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의 뜻이 아닙니다. 더 늦기 전에 자신을 찾아 나서십시오. 세상 어딘가에 버려져 있을, 세상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을 참된 여러분의 모습을 말입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